

2026. 7. 29.(수)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6년 7월 29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동남권사업과장

임창섭

02-2133-826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5쪽

민자사업팀장

김창환

02-2133-8271

잠실 민간사업 실시협약 체결... '32년 원공 목표로 '서울 스포츠·MICE 파크' 조성 본격화

- 서울시-(주)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가칭),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 코엑스 2.5배 전사건벤션·3만 석 돔야구장경기 직관 호텔 도입으로 서울 글로벌 경쟁력 견인
- 사업비 전액 민간 투자... 수익 일부 기금화해 서울 전역 균형발전에 재투자
- 市, “잠실, ‘G3 서울’ 향한 서울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거듭날 것”

□ 잠실종합운동장 일대를 코엑스 2.5배 규모의 대규모 마이스 시설과 3만 석 규모의 돔야구장이 어우러진 첨단 스포츠·문화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서울 스포츠·MICE 파크’ 조성 사업이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이하 ‘잠실 민자사업’) 협약 체결로 핵심 퍼즐을 완성하며 본격 추진된다.

□ 서울시는 7월 28일(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인 ‘(주)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가칭)’(주간사: (주)한화 건설 부문)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실시협약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와 공공이 사업시행 조건 등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으로, 민간투자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 이번 실시협약 체결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약 29만㎡를 스포츠와

MICE, 숙박·상업·업무 기능이 집약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잠실 민자사업’은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본격화한다.

- 잠실 민자사업은 2021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4년간의 협상 과정에서 고금리, PF 시장 침체, 공사비 급등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는 우선협상대상자와 총 160회에 걸친 치열한 협상을 이어갔으며, 정부와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한 끝에 마침내 실시협약 체결에 이르렀다.
- 서울시는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기획예산처가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변경('24.10월)해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는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

<코엑스 2.5배 전시컨벤션3만 석 돔야구장경기 직관 호텔 도입으로 서울 글로벌 경쟁력 견인>

- 잠실 민자사업의 핵심은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할 코엑스 2.5배 규모의 서울 최대 전시(8.9만㎡)·컨벤션(1.9만㎡) 시설이다.
- 전시장은 상하부 복층구조로 총 9개의 전시홀로 구성된다. 상부 전시장은 기둥이 없는 무주(無柱) 구조를 적용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으며, 하부 전시장은 높은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 대규모 국제 전시도 개최할 수 있다.
- 잠실 민자사업의 또 다른 중추적 기능인 스포츠시설도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프로야구 시즌 LG와 두산 구단의 홈구장으로 활용될 돔야구장은 4성급 비즈니스호텔과 연계해 일부 객실 및 라운지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비시즌에는 공연장 등 복합 문화공

간으로 운영한다.

- 국제농구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1만 1천석 규모의 ‘스포츠콤플렉스’는 SK·삼성 농구구단 홈구장으로 활용되며, 경기가 없는 기간에는 공연, e-스포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운영한다.
- 특히 음향, 조명 등 무대 특수장비를 갖춰 전문 공연장 수준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총 841실 규모 숙박시설, 탄천·한강 일대 상업시설, 프라임오피스 등 도입해 MICE산업 지원>

- 전시·컨벤션, 스포츠시설, 업무시설과 연계해 총 841실 규모의 숙박시설도 조성한다. 전시·컨벤션과 연계한 5성급 호텔(288실), 돔야구장과 연계한 4성급 비즈니스호텔(306실), 업무시설과 연계한 워케이션형 4성급 레지던스 호텔(247실) 등 다양한 규모의 숙박시설을 도입해 MICE, 비즈니스, 관광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 연면적 11만㎡ 규모의 상업시설은 탄천·한강 수변공원 일대와 연계한 문화·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고,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상 31층, 연면적 약 20만㎡ 규모의 프라임 오피스를 도입해 국제업무와 MICE 산업 거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원,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도 확충한다. 코엑스에서 잠실 MICE 단지를 지나 한강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보행축을 조성하고, 마이스 숲길과 올림픽 광장, 호텔(5성급·레지던스) 전망대, 스포츠콤플렉스 스카이워크, 수변 분수 등 다양한 문화·휴식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한편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현대차 GBC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등 동남권 주요 개발사업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이 일대를 스포츠와 MICE, 수변·녹지가 어우러진 서울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비 전액 민간 투자… 수익 일부 기금화해 서울 전역 균형발전에 재투자>

- 잠실 민자사업의 총사업비는 2조 6,955억 원('16년 불변가격)으로 기존 민자사업과 달리 재정지원(건설·운영 보조금) 없이 사업비 전액을 민간 투자로 추진하되, 사업 수익 일부는 환수금 및 초과 이익으로 시와 공유한다. 서울시는 이를 기금화해 서울 전역 균형발전에 재투자하는 사업수익 민·관 공유 상생 구조를 마련한다.
- 잠실 민자사업은 약 595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약 242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잠실 일대는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기반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2007년 한강을 중심으로 도시의 내일을 그리기 시작한 이후 수많은 논의와 협의를 거쳐 준비해 온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이번 실시협약 체결을 계기로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며 “잠실을 스포츠와 MICE,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서울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조성함으로써 ‘G3 도시 서울’의 기틀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전체 조감도

